

內藏寺 遺蹟 遺物

金 和 英

全羅北道 井邑 內藏山에 위치하고 있는 內藏寺에는 원래 碧蓮庵、圓寂庵、佛出庵、月出庵、三清庵 등의 庵子가 있었으나 一九五〇년 六·二五 동란시 모두 불타버리고 一九五八년에 재건하였다. 境內에는 大雄殿과 定慧樓 및 寮舍體 二棟이 있으며 入口의 浮屠殿에는 十餘基에 달하는 浮屠群이 있으나 모두 近年에 세워진 것이었고 大雄殿 오른쪽에 石塔 一基와 암자 터에서 石塔材 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大雄殿 안에 奉安된 銅鐘은 銘文이 있어 정확한 鑄成年代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韓國鐘의 特色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자로 소개하고자 한다.

I

大雄殿 안에 奉安된 銅鐘(사진參照)은 總高 七二cm의 靑銅製 中形 梵鐘으로 鐘身 頂上에 甬筒과 龍鈕를 갖추었다. 上徑 三·五cm의 甬筒은 上端에 十개의 圓珠가 둘러졌으며 한마리의 龍이 甬筒 표면을 휘감고 있다. 龍鈕는 胴體에 龍鱗과 毛髮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雙龍이 아니라서 實感을 감하고 있다. 외쪽 발은 鐘의 頂上部를 닮고 오른쪽 발에는 徑 二·一cm의 큰 如意 寶珠를 받들고 있는데 양 쪽 다리에 모두 날개가 달려있다. 肩 上에는 立狀形의 귀꽃을 돌렸는데 대부분과 同되었고 上帶는 上·下 두 단으로 이루어졌다. 上段에는 寶相華紋을 下段에는 장식 문양이 있는 圖式化한 蓮瓣이 새겨졌으며 上帶 아래로 한 줄의 橫線과 二十一개의 圓座가 있어 圓座 內에 각각 梵字가 양각되

었다.

鐘身 네 곳에는 乳廓을 배치하고 그 사이 間地에 菩薩立像이 陽鑄되었다. 乳廓은 上·下 폭의 차이가 별로 없는 正방형에 가까운 사다리꼴로 寶相華紋帶를 두루고 乳頭는 八葉의 蓮華座 中心에 突起되었다. 菩薩立像은 胴體 주위에 윤곽선을 두르고 鐘 표면보다 약간 두드러지게 陽鑄하였는데 머리에 寶冠을 쓰고 두 손을 가슴에 들어 합장하고 있으며 頭光은 圓形이나 蓮華座는 생략되었다.

鐘 下部에는 撞座가 없고 乳廓과 菩薩立像 바로 밑에 이 銅鐘의 鑄成 年號를 새긴 銘文이 二十五行 있는데 그全文은 다음과 같다.

「乾隆三十三年」「戊子十月日長」「興寶林寺明」「正庵中鐘鑄」「成尹光衡」「大禪師光學」「化主德洞」「別座來應」「施主秩」「大施主」「尹光衡」「趙漢寶爲父母」「趙仁九」「璽」「梁氏」「林曾弼」「妻宏氏」「李益春」「子孟元」「勝浩比丘」「時住持」「舜青」「天王」「三綱 印瓊」「宗卜」
下帶는 鐘口에 幅 三·二cm의 寶相華紋帶가 장식되었다.

이 鐘은 鐘銘에서 보이듯이 乾隆 三十三年(一七六八 A.D.) 李朝 英祖



內藏寺 所藏 乾隆三十三年銘 銅鐘

四四年에 寶林寺 明正庵의 鐘으로 鑄造된 것인데 어느 때 이곳으로 移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銅鐘은 전체적으로 보아 細長한 편이고 下部에 이르면서 좁아졌는데 이러한 梵鐘의 형식은 新羅系 梵鐘의 양식에 속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口緣部에서 두터워지고 鐘身으로 올라가면서 얇아지는 것 역시 新羅계통이라 하겠다.

- 實測值 總高 七二 cm 龍鈕高 十六 cm
口徑 四六·三 厚 五 cm 上徑 三四 cm
乳廓 上幅 一三·五 cm 下幅 一四·二 cm 높이 一三·五 cm
菩薩立像 높이 二一·八 cm 銘文字徑 一·二?二 cm

II

大雄殿 右側에 屋蓋石 四枚 屋身石 四枚가 붙여있어 四층을 이루고 있는 石塔 一基가 세워져 있다. 이 석탑은 현재 자연석을 地台石으로 삼고 그 위에 파손된 石塔材를 올려 놓은 석탑이다. 各屋身石에는 兩隅柱가 彫出되었으며 屋蓋石 下面에는 三?四단의 옥개석 받침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屋蓋石은 파손이 심하여 원상을 알 수 없다. 屋蓋石 上面에는 一段의 屋身 받침이 있어 屋身을 받고 있으며 四층 옥개석 위에는 露盤과 伏鉢이 한 돌로 만들어진 相輪部材가 놓여 있다.

그런데 이 石塔의 옥신석의 크기를 아래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높이 四九·五 cm 폭 五三·八 cm 우주폭 九·五 cm
② 높이 五一 cm 폭 四三 cm 우주폭 八·三 cm
③ 높이 七·五 cm 폭 三六 cm 우주폭 七 cm
④ 높이 二四 cm 폭 三三 cm 우주폭 六 cm

以上の 옥신석 크기로 보아도 이 석탑은 원래 돌 이상의 石塔材를 모은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기 석질도 약간 다른 점으로 보아서도 두 탑 以上の 塔材를 모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석탑의 造成 年代에 대하여는 屋蓋石의 두께가 폭에 비해 매우 두터고 上面에 한 단의 옥신 받침과 낙수면의 급한 경사 및 옥개석 받침이 三?四단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高麗時代 것으로 推定된다. 석탑의 現高는 二七五 cm.

III

이 외에 內藏寺에는 三淸庵、佛出庵、圓寂庵、碧蓮庵 등 수처의 庵子가 있었으나 모두 근년에 세워진 것이었으며 碧蓮庵址에서 옛 庵子의 遺蹟을 찾아볼 수 있었다. 東國輿地勝覽에 內藏寺라고 소개된 이 암자는 白蓮庵이라고도 부르는데 西來峰 中턱에 南向한 台地에 세워졌으나 현재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 석축, 돌계단 곳곳에 초석이 보였으므로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암자터 왼쪽 우물터 옆에 石塔材 三枚가 낙엽속에 묻혀 있었으므로 石塔材를 조사할 수 있었다. 확인된 塔材는 모두 屋蓋石으로 一枚를 제외하고는 倒壞되어 있어 一枚는 落水面이 露出되었고 다른 二枚는 옥개석 받침 부분이 드러나 있었는데 모두 파손되고 등산객의 발길에 磨損되었다. 다만 이 옥개석 틀은 낙수면에 경사가 급하다는 것과 屋蓋石 받침이 四단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高麗時代 石塔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 부근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하면 塔身石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사된 屋蓋石은 屋蓋石 上面 한번 길이가 四五 cm 두께 三〇 cm인 것 과 幅 약 一七 cm 지상에 노출된 높이가 一五 cm인 것 옥개석 下端 받침 폭이 四二 cm인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교적 큰 석탑이 세워졌던 것으로 현재 內藏寺에 遺存하는 遺蹟 遺物중 제일 오래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塔材는 길 옆에 노출되어 있어 수많은 등산객에 의해 점점 더 원상을 그릇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寺內로 옮겨 보존해야 할 것이다.